

“범야권 뭉치는게 DJ 유지 받드는 겁니다”

■ 하의도 찾은 동교동계 부활하나

권노갑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중심 치러야” “동교동계도 출마할 것”... 현실정치 참여 시사

“민주화 세력이 뭉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겁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신’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10일 김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를 이끌고 신안 하의도를 방문했다.

이날 하의도 방문에는 권 전 고문을 비롯해 한화갑·한광옥·김옥두·정균환·최재승·설훈·윤철상·장성민·국창근·배기운·한영애·이훈평·신계륜 전 의원 등 동교동계 120여 명이 참석, 단합을 과시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과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 유종근 전 전북지사, 전갈길 광주 광산구청장, 이윤석 의원 등도 동행했다.

권 전 고문은 “김 전 대통령을 추억하고 그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받들고자 민주화투쟁 지지들과 함께 하의도를 찾게 됐다”며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국내에 머물면서 동



권노갑 전 민주당고문, 한화갑, 한광옥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10일 신안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고인의 삶을 되새기고 있다. /하의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러나 ‘동교동계’의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장 때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하의도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하의도를 방문하게 됐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장 전 의원은 “DJ 서거 이후 동교

동계는 매주 화요일 이희호 여사를 모시고 김 전 대통령의 묘지를 참배 해오고 있다”며 “이번에는 생가를 방문해 그분의 유지를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목포를 거쳐 오후 12시50분께 신안 하의도로 들어가 김 전 대통령의 묘교인 하의초등학교

에서 지역 주민, 학교 관계자 등을 격려한 뒤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참배한 뒤 덕봉강당, 하의도 농민운동기념관, 큰바위얼굴 등 지난 4월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고향 방문길을 되짚으며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상경했다.

/하의도=박정욱기자 jwpark@

‘세종시 내홍’ 깊어가는 與 “이러다 당 쪼개질라”

당 계파 갈등 심화속 중재 역할 인물 없어

세종시 축소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이 구심점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다.

특히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양계파 간 갈등이 매일 정도를 더해가는데도 이를 중재하고 완충시킬 역할을 할 세력이나 인물이 전혀 없어 당 존립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닫하고 있는 지적이다.

10일까지 정몽준 대표가 양 계파 사이의 ‘교량역’을 자임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해 전혀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박희태 전 대표와 홍사덕 의원도 원로로서 역할을 거의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다.

계다가 과거 친이-친박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 ‘해결사’역을 맡아 박 전 대표측과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중재를 해왔던 이상득 의원도 동기남관, 큰바위얼굴 등 지난 4월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고향 방문길을 되짚으며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상경했다.

을 지키고 있지만, 당 내홍이 깊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양 계파 갈등이 가깝게는 연말 정국부터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 차기 대권구도를 놓고 더욱 심화할 것이 확실시돼 분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이번 세종시 논란에서 친이-친박 양 진영이 이미 풀이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양 계파 모두 파국을 원하지는 않고 있어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기까지 냉각기를 가지면서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친이계 한 핵심 의원은 “세종시 문제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양 계파가 당내 분열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냉정함을 되찾아야겠느냐”고 희망 찬 전망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이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도 매일 깊어지고 있어 분당의 시한폭탄의 뇌관은 이미 작동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李대통령 이달중 세종시 입장 표명

靑, 시점·내용 검토 착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중 세종시 수정에 대한 대(對) 국민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장표명 시점과 형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일 방정환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경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데 이어 11일 다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 세종시 수정안의 연내 마련 등이 문제에 대한 조기 매듭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정몽준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 기본구상을 보고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했을 당시, 본인이

직접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만류해 일단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세종시 수정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참모들에게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나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는 이 대통령이 이달 중이라도 입장표명을 하는 쪽으로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언제라도 직접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달중 입장표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MB는 남북 정상회담 조속히 해야”

박지원 의원 전남대 특강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0일 “사회통합과 문화강국은 민주주의를 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비전2020포럼 주제 ‘행동하는 양심-김대중 사상 대강좌’ 초청 특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회통합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인 민주주의와 동서간 갈등, 남북 간의 냉전 종식을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를 통해 균등 인사와 균형발전을 하면 동서화합이 되고, 민주주의를 통해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 민족 간 냉전도 종식되고 인권



가 통일도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제1번 3당 합당을 제안받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거절했다”며 “그 결과

199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국민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지루한 갈등을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사회통합으로 결론지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면서 1년 반 동안 뒤를 캐고 청문회에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두환, 노태우와 3당 아합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비밀특사를 교환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변화에서 헤매지 말고,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DJ, 동교동계 이름으로 정치하지 말라 했다”

박지원, 동교동계 정치 행보 직격탄

동교동계와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증폭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1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동교동계 인사들의 정치적 움직임과 관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에 누를 끼치는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어 “DJ께서 대통령 취임과 퇴임 직후, 자신들에게 개인적으로 정치적 발전을 이뤄야 하지만 앞으로 ‘동교동계’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강조, 동교동계 인사들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동교동계 인사들이 DJ

의 고향 하의도를 방문하면서 자신을 제외한 것과 관련, “가타부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분들(동교동계)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교동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DJ 독점론’에 대해 박 의원은 “DJ께서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지내실 때 비서실장을 맡았었고 DJ 서거 이후 이희호 이사장의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DJ 내외분을 모시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늘이 내게 부여한 소명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생명력 넘치는 물
“헥사곤”

6-스테이지 파이루트 정수기

- 양심리수, 미네랄리수, 피톤치드 리미네이션
- 세계적인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받은 인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8단계 정수 시스템
 - 1. 세척제 필터링
 - 2. 미네랄리수 리미네이션
 - 3. 미네랄리수 리미네이션
 - 4. 미네랄리수 리미네이션
 - 5. 미네랄리수 리미네이션
 - 6. 미네랄리수 리미네이션
 - 7. 미네랄리수 리미네이션
 - 8. 미네랄리수 리미네이션
- 세척제 제거 -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수기 가격의 저점입니다!
확실히 정수했습니다!!

지역총판 및 대리점 모집

호남지사 (082) 434-9194 목포점 (081) 278-4200
신주치량점 (062) 375-0230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김종하 호도선물 선거운원!

전국 최저가 판매

생각이 다른 비데 선택기준이 큰지는 실속 있는 호도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BD-KA150
399,000원
219,000원
(18% 할인)

비데프라자

비데프라자 (082) 515-1144